

# 3조원대 '남부권 진흥사업' 본격화

### 전남도-시·군-관광재단, 고택·남도한상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광역관광개발 연계 10년간 매년 70억 투입...글로벌 관광지 탈바꿈

전남도가 관광 핵심 자원을 발굴·보존하고 프로그래밍 및 콘텐츠로 개발해 향후 10년 내 전남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남부권 광역 관광 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6일 "지난 5일 전남도청에서 3조원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 10년간 매년 70억원이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군, 전남관광재단과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을 포함해 남부권 5개 시·도에 모두 3조원을 쏟아붓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지난해 12월 확정된 후 올해부터 개발사업이 속속 첫 삽을 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관광역량을 끌어올릴 진흥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2107억 원 규모로, 전남에 가장 많은 697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의 새로운 광역관광루트 구상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남도고택과 남도음식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

으로 꾸려졌다. 10년간 매년 7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이날 남부권 진흥사업을 총괄 컨트롤 타워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미숙 실장, 진흥사업을 실제 추진할 전남관광재단 실무진과 도 내 22개 시·군 팀장급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설명회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진흥사업의 특징과 추진 배경,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추진 사업과 세부 계획 수립, 대표 시군 선정, 실행계획 용역 발주, 예산 분담 비율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는 연차별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10년간 '지역의 관광 청사진'을 촘촘히 그려나가는 구상이다.

주요 진흥사업은 ▲전남 남서권에 흠뻑 퍼진 한옥 고택을 정비하고 브랜드형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미항 전남 위상에 걸맞게 전남 음식 명인과 손잡고 남도

음식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할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 등이다.

전남 동부권은 섬진강 권역과 지리산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색을 살린 휴식형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수용태세 개선을 도와 '1달 살기', '일주일 살기', '하루 더 살기' 등 체류 여행 상품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상품은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운영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운영 등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남부권 진흥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10년간 길게 내다보며 추진, 시군 지역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0년 뒤 2030 젊은층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찾는 전남 곳곳이 매력 가득한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2개 시군, 전남관광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세련된 홍보·마케팅으로 남부권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협력업체 복지 개선해 車산업 인력난 해소

### 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선정...기숙사·건강검진비 등 지원

광주시가 자동차부품제조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산업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광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자동차부품제조업 근로자 복지 향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따라 원·하청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광주시는 국비를 포함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제조업과 협력기업 협회사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15세 이상 59세 이하 신규 근로자(정규직)에게 기간별 근속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정규직)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월세) 월 30만원, 건강검진비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공용이용시설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제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민 마음건강 돌본다

### 다음달부터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서비스 기관 모집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50분 이상)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

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공간을 확보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질 관리와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등록때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물 등을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영선 초대 전남연구원장 선임

지난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독립 출범한 전남연구원 초대 원장에 김영선 전 한국광기술원 원장이 선임됐다.

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5일 전남도청 서재 필실에서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기관 경영 능력을 지닌 김영선 후보자를 선임 원장으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의 위기와 기회에 적극 대응해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라남도의회 인사청문회의 평가를 반영해 원장 선임에 최종 합의했다.

김 예정자는 강진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

센터장, 한국광기술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영록 이사장은 "전남연구원 이사장이 취임 후 지남연구원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전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등 체감형 현안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김영선 선임 원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원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무안 양파 농가 일손돕기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들이 6일 오전 무안군 운남면 소재 양파 농가를 방문해 양파 수확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신청하세요

### 이달까지 모집...종량제 봉투·상하수도 요금 최대 100만원 지원

광주시는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은 광주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 하면서 근로계약서·최

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동사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상하수도요금 최대 100만원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50ml 48매),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

함),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 대상 현지 조사(7월)와 심의위원회(8월)를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9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사업은 2017년부터 해마다 신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광주지역 83곳이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